

GO 월드컵, 가자 4강

아드보카트호 15일 전훈 대장정 스타트 해외·국내파 독일행 무한 생존경쟁 돌입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자정을 막 넘긴 시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한겨울에 열사(熱沙)의 땅으로 향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행 에미리트항공(EK) 323편에 3기(期) 아드보카트호 태극전사 24명이 몸을 싣는다. 오는 29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저녁 홍콩, 동유럽 강호 크로아티아를 그라운드에서 맞이한 아드보카트호에는 부쩍 힘이 불는다.

2월15일 '무승 징크스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바뀐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일월드컵 톱시드 팀 멕시코를 만난 아드보카트호에 더 이상 두려움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5월29일 독일 입성을 코앞에 둔 최종 베이 스캅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박지성(맨체

스터 유니타이트), 이영표(토트넘) 등 유럽파가 합류한 아드보카트호는 서서히 '톱니바퀴 조작성'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6월13일 오후 3시, 반투명 지붕을 통해 은은한 채광이 스며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트 스타디움.

5개월여 대장정을 통해 구슬땀을 뿜어낸 태극호는 월드컵 무대에 첫 선을 보인 복병 토고 대표팀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월드컵의 해' 병술년, 태극전사들의 새해 계획표다.

등지한 수문장 이운재(수원)와 오랜 부상을 털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되찾은 김남일(수원), 어느덧 성숙미를 풍기기 시작한 박주영(FC 서울)이 '제2의 연습생 신화'를 꿈꾸는 장학영(성남), 서른 셋에 태극마크를 단 늦깎이 조준호(부천)와 함께 '외부의 적'보다 훨씬 합선 '내부 생존경쟁'에 돌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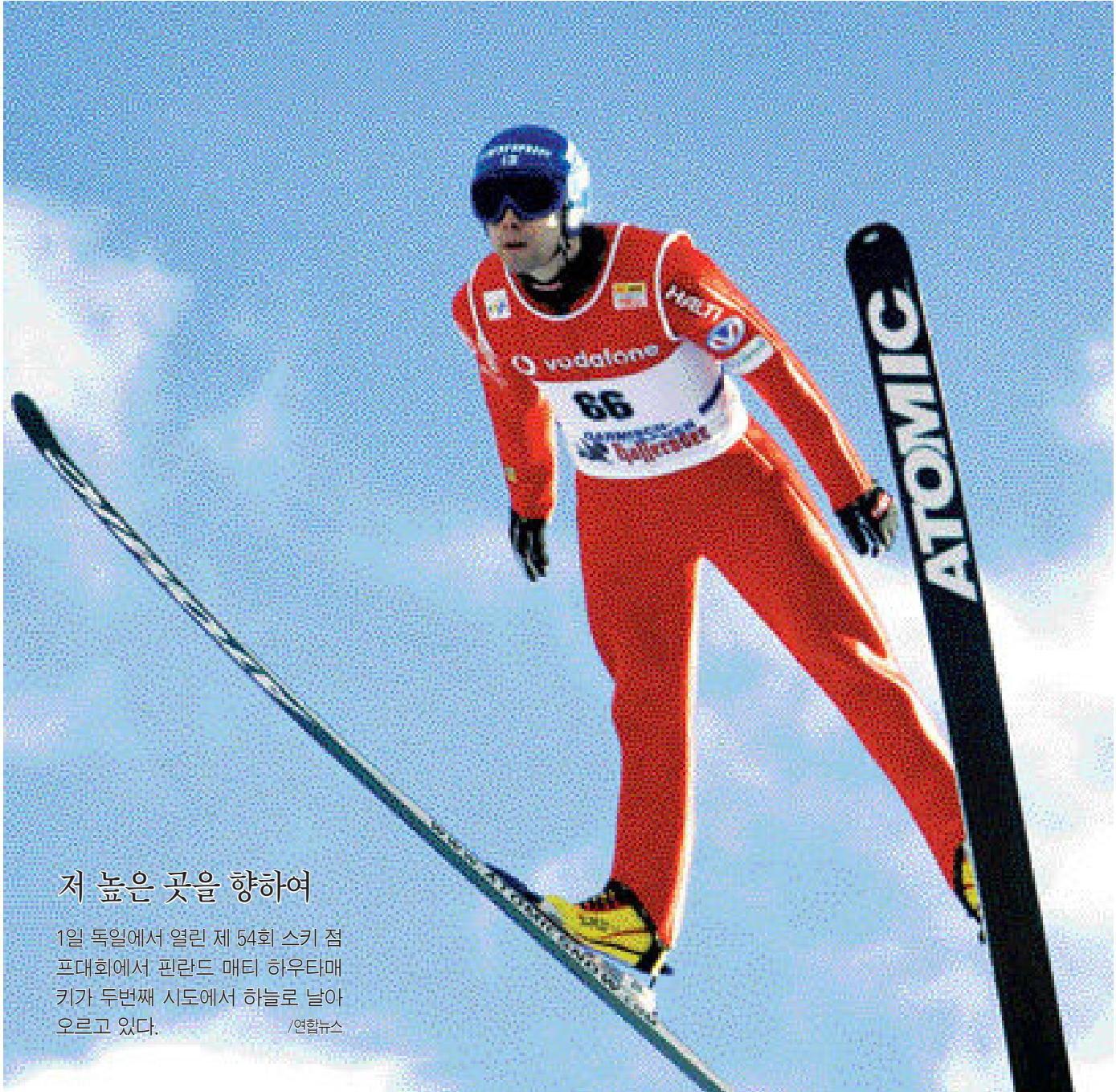
유럽에서 월드컵 구상을 머릿속에 그려넣은 팀 아드보카트 감독은 실재없이 '무브, 무브(움직여)'를 외친다. 미니게임에서 제대로 압박을 하지 못하는 태극전사에게는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진다.

24명의 전사들에게 독일행 티켓은 결코 그냥 보장되지 않는다. '주전 자리'는 유럽파의 존재와 최종 엔트리(23명)를 감안할 때 많아야 16~17석 뿐이다. 경쟁은 7~8명을 냉혹한 탈락자의 자리로 내몰 수 밖에 없다.

전지훈련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리그가 한창 진행 중인 유럽파 태극전사 박지성, 이영표와 설기현(울버햄프턴), 안정환(FC메스), 차두리(프랑크푸르트),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유럽파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소속팀과 리그의 이름값으로 선수를 뽑던 시기는 끝났다는 원칙도 서 있다. 아드보카트호의 내부 경쟁 무대는 전지 훈련지와 유럽 리그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들의 공통 목표는 오직 독일행 뿐이다. 새해 태극호에 휴식은 없다. 프로그래밍과 연습사리 합의해 내년 6주 간의 금쪽 같은 시간에 남비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일 독일에서 열린 제 54회 스키 월드컵대회에서 핀란드 매티 히우타마키가 두번째 시도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G조 주요경기

예선 11골 폭발... 토고 본선행 이끌어

토고 아데 바요르



한국 축구대표팀의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첫 상대인 아프리카 토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입에 올리는 선수가 있다. 바로 최전방 공격수 예마누엘 아데바요르(22·AS모나코)다.

최근 유럽 스포츠전문 채널인 '유로스포츠'는 2006년 세계 축구계에 깊은 인상을 심어줄 떠오르는 별 10명에 아데바요르를 포함시키면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토고가 월드컵 본선에 오르는 물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데바요르의 득점력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1960년대 활약했던 토고 축구의 전설 프랑크 피야우를 이을 재목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아데바요르는 독일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에선 12경기(1차 예선 포함)에서 개인 최다인 11골을 터뜨려 토고의 사상 첫 월드컵 본선행을 이끌었다. 팀이 성공시킨 22골 중 절반을 혼자 쓸어담은 셈이다. 17세이던 2001년 FC메스 1군에 합류, 프

로 생활을 시작했고 데뷔 첫 해인 2001-2002 시즌 10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다. 주전자리를 확실하게 2002-2003 시즌엔 2부리그 34경기에서 13골을 몰아넣어 득점랭킹 2위에 오르며 한 시즌 만에 팀을 다시 1부로 올려 놓았다.

이 때의 맹활약으로 이탈리아 유벤투스, 잉글랜드 아스날 등 명문 구단의 러브콜이 이어졌고 결국 현 소속팀인 프랑스 강호 AS모나코로 이적, 2003-2004시즌부터 두 시즌 동안 리그에서 17골(65경기)을 기록했다.

2004년 토고 올림의 선수로 선정된 아데바요르는 올 시즌 리그에선 비록 13경기에 출전해 단 한 골에 그치고 있지만 유럽축구연맹(UEFA)컵 5경기에서 3골을 성공시키는 등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190cm가 넘는 장신임에도 발 재간이 빼어나고, 스피드와 골 결정력 및 위치선정 능력도 좋아 상대 수비로서는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 /연합뉴스

ARS 통해 로또 1등 당첨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 동안 닥터로또에서 제공하는 로또당첨번호예측ARS서비스(080-802-0611)를 통해서 2등 및 3등의 고액당첨자가 회차마다 배출되고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조만간 1등 당첨자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다 개선하여 당첨확률을 한층 높였으며 로또 1등 당첨금 정보도 제공된다. (정보이용료 300원 / 30초)

지성·영표 새해 상쾌한 출발

첫 경기 출전 팀 승리 이끌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태극듀오' 박지성(24·맨체스터 유니타이트)과 이영표(28·토트넘 핫스퍼)가 2006년 새해를 맞아 활약을 펼쳤다.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는 1일(이하 한국시간)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서 열린 맨유-볼튼전(맨유 4-1승)이 끝난 뒤 후반 교체출전한 박지성에게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6점을 매겼다. 박지성은 이날 후반 36분 웨인 루니 대신 교체 투입돼

정규리그 20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이어갔다. 팀 동료 가운데 웨인 루니가 9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후반 2골을 몰아넣은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와 게리 네빌이 8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6~7점이었다.

이영표는 지난달 31일 말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뉴캐슬과 홈 경기(토트넘 2-0승)가 끝난 뒤 스카이스포츠로부터 '에너지가 넘쳤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7점을 받았다.

아일랜드산 공격수 로비 킨이 9점으로 가장 높았고 호삼 미도, 에드가 다비즈는 물론 수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마이클 도슨이 8점을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무주 로가지!
무주스키장 매일운행
88인원 리프트 최신형 버스

일주일 쉬는 날도 매일 운영! (평일 제외)
1. 스노우카운터 2. 스노우캐논 3. 스노우캐논 4. 스노우캐논 5. 스노우캐논 6. 스노우캐논 7. 스노우캐논

1호선	무주-경포-영수-진영	2호선	무주-동산-영수-회정-회정
3호선	무주-회정-회정-회정-회정	4호선	회정-회정-회정
5호선	회정-회정-회정-회정	6호선	회정-회정-회정-회정-회정

www.danoktour.com - 020-913-9005-7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유리벽 관입식 복원

- 1차~3차까지 복원공법
- 1차정공후 최단기간(1주일)에서 후발
- 1차정공시공을 이중공법(복원공법)으로
- 성공 보장이 보장

유리벽 관입식 복원공법

- 1차정공, 2차정공공법
- 1차정공, 2차정공, 3차정공, 4차정공, 5차정공, 6차정공, 7차정공
- 2차정공
- 3차정공

www.danoktour.com